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성남시

2020년 하반기 소식지 **서행2호**

	서	서	티				
	행	복	해	지	는		곳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 목차

01

## 가화만사성

### 家和萬事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단다.

인사말  
법인소개 '안나의 집'  
쉼터 운영방향 및 소개  
사업진행 구조  
2020 운영현황  
쉼터 내·외부 모습  
쉼터 동정

02

## 화양연화

### 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학습지원  
문화 및 교류활동  
수련활동  
주말요리(자립 프로그램)  
월드비전 공모사업  
'성남시 내 고향'  
(월세&도시락 지원)

03

## 고진감래

### 苦盡甘來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중장기쉼터 우수사례  
여성가족부 우수청소년 장관표창  
자립예정 '오성진 인터뷰'  
대학합격수기 이주황(가명)  
대학합격수기 김동현(가명)  
Adieu 2020  
감사합니다

04

## 명심불망

### 銘心不忘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실습후기 - 김남희  
봉사자 후기 - 박성영  
봉사자 후기 - 안수호  
종사자 이야기 - 방철우

05

## 유방백세

### 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후원금 내역, 후원물품 내역  
봉사자 소개  
후원계좌/ 오시는 길





# 첫번째 가화만사성

## 家和萬事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다.

인사말

법인소개 '안나의 집'

쉼터 운영방향 및 소개

사업진행 구조

2020 운영현황

쉼터 내·외부 모습

쉼터 동정







		인		사		말	
--	--	---	--	---	--	---	--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던 2020년이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던 2020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외출·외박이 제한되어 대부분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쉼터에만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력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덕분에 신규 입소 청소년들은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며 기존 입소 청소년들과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부딪치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기존 학습 봉사자님들의 방문이 어렵게 되었지만 형들이 동생들의 학업을 봐주면서 오히려 형들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동생들은 형들에게 학업을 배우며 학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여 2021년에는 5명이 대학교에 합격하였으며, 모범 청소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한 아이들이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선정한 2021년 중장기쉼터 가훈은 '남을 배려하며 살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 봉사자님들과 후원자님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배려'를 받아 보기도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이들의 바람처럼 남을 더 배려할 수 있는 중장기쉼터 아이들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중장기쉼터 종사자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시 설 장 장 가 람



## 법인소개 ‘안나의 집’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
- 설 립 일 : 1998년 7월
- 설립계기 : 안나의 집은 IMF이후 노숙인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숙인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C소개



다섯 개의 꽃잎과 그 가운데에 안나의 집을 상징하는 집의 형상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는 안나의 집의 창립이념과 사랑, 봉사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꽃잎에 적용된 차분하고,  
고운 초록 색상은 안나의 집에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 ‘안나의 집’ 조직도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방향

## Mission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양성을 통한 사회공헌

## Vision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쉼터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쉼터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쉼터

## 중점 목표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보호
2. 학업형 : 학령기에 맞는 학습지원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3. 자립형 : 진로상담을 통한 자립계획 설정 및 자립 기술 훈련
4.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 지원
5.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예방활동
6.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 종사자 양성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설립 및 운영주체

- 설 립 : 2011년 10월 1일 성남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위탁사업실시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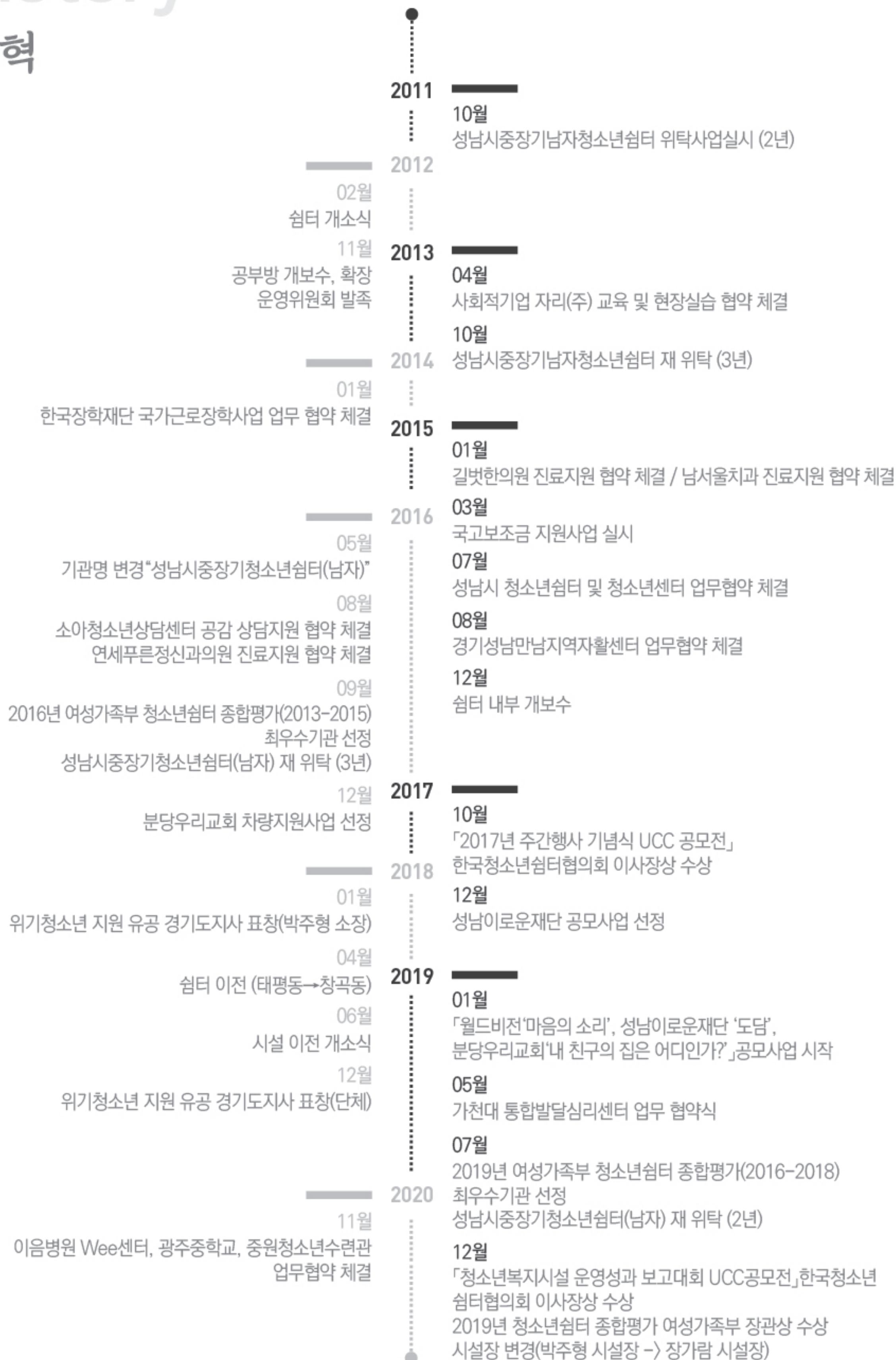
## 직원현황

성 명	직 책	업무내용
장가람	시설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재용	보호·상담원	운영위원회, 관공서아웃리치, 수련활동, 퇴소생 사후관리
오정빈	보호·상담원	운영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집단프로그램, 학업관리
손석훈	보호·상담원	시설관리, 직업체험,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현미숙	행정원	행정 및 후원관리
방철우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인권교육, 문화활동
조 욱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안전교육, 교류활동
이미자	취사원	주간식단 및 식사관리



## History

## 연혁





# Business process

## 사업진행 구조

### 입소의료

입소면접  
사례회의  
입소여부 결정



### 입소

Intake&사정  
초기면담  
생활규칙 안내



### 사례관리

생활보호 지원  
학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진로 및 취업준비  
법률지원  
상담지원



### 퇴소

퇴소상담  
퇴소 신청서 작성 및 만족도  
원가정 및 사회복귀, 기관연계  
LH 주거지원 연계



### 사후관리

문자, 메신저, 전화, 방문 등의  
사후관리 진행  
퇴소생 도담(도시락지원)사업





사례수

단위:명

구분	입소생	사용자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5	65	80
신규등록 사례수	7	65	72
연인원 사례수	3,302	116	3,418

입소연령

단위:명

구 분	남				합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입소자	0	5	4	6	15
이용자	0	4	5	56	65
합 계	0	9	9	62	80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명

구 분	보호기간					소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0	1	4	0	10	15
사용자	64	1	0	0	0	65

사후관리

단위:명

구 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총 계
합 계	65	84	2	0	0	151

\* 퇴소생 6명 LH임대주택 및 대상자 선정

퇴소현황

단위:명

구 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합의 퇴소	사회복귀 (자립욕구에 의한 합의퇴소)	
합 계	1	0	1	0	0	0	0	3	5

상담지원현황

단위:명

구 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 분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 검사	서신 상담	지원 서비스	
본인(청소년)	5,719	0	0	0	1,438	139	31	0	68	4,043	5,719
학부모	65	0	0	0	14	48	2	0	1	0	65
부모외 가족	3	0	0	0	0	3	0	0	0	0	3
지도자	206	0	0	0	64	141	0	0	1	0	206
일반인	31	0	0	0	12	19	0	0	0	0	31
기 타	9	0	0	0	3	6	0	0	0	0	9
합 계	6,033	0	0	0	1,531	356	33	0	70	4,043	6,033



## 쉼터 내·외부 모습



외관



거실



숙소



식당



샤워실

## 2020 기능보강사업(방음공사, 빔설치)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 쉼터 동정



이음병원 협약식



중원청소년수련관 협약식



광주중학교 협약식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외부 수퍼비전(김장이 교수)



종사자 소진예방 교육



시티문화재단 후원금 전달식



성남 부시장 방문



통합 운영위원회(연 4회)



두번째

# 화양연화

## 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학습지원

문화 및 교류활동

수련활동

주말요리(자립 프로그램)

월드비전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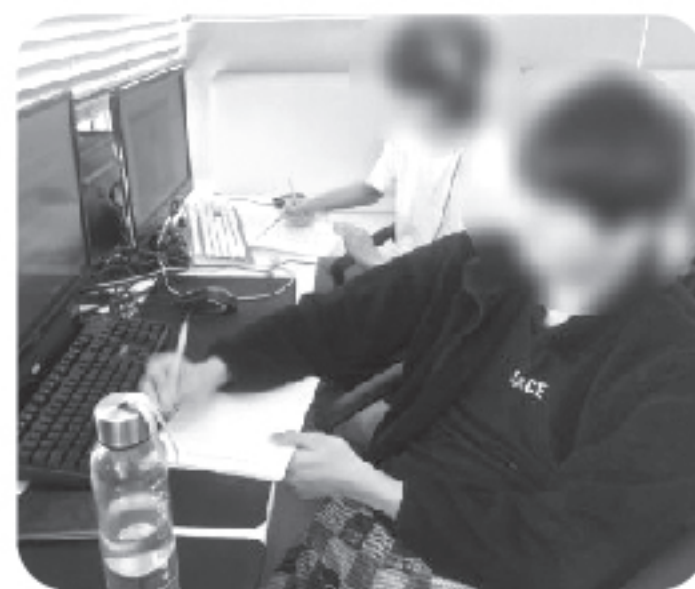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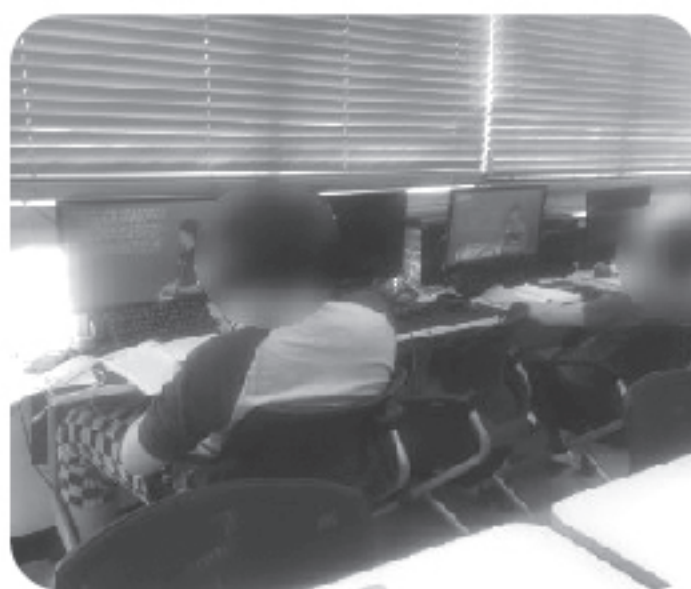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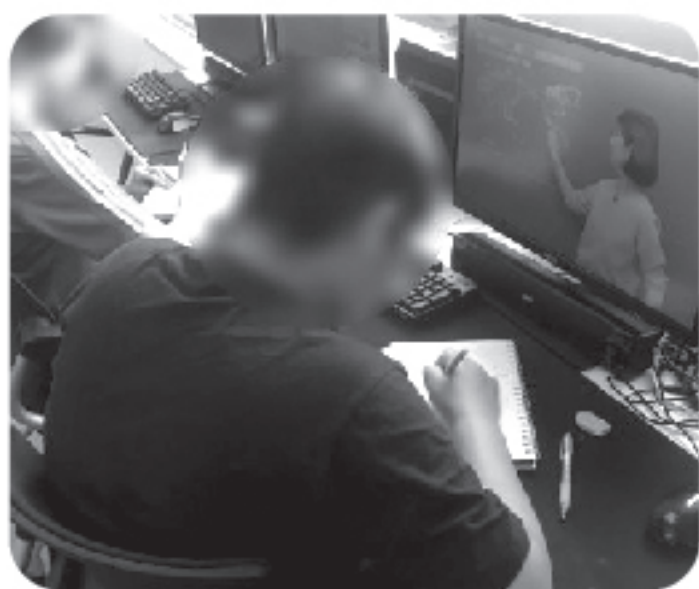
‘성남시 내 고향’

(월세&도시락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지원



## 개인 학습 지원



영어(손승혜 봉사자)



영어(홍장원 봉사자)



영어(최현정 봉사자)



국어(이윤호 봉사자)



과학(강지완 봉사자)



경제(주우성 봉사자)



한국사(손현진 봉사자)



수학(박성영 봉사자)



개인 자율 학습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문화활동



천 컬러링



북카페 체험



민속촌 전통의상 체험



영화관



한국 전통 도예



다도 체험

## 교류활동



자전거 라이딩



탁구



무중력 체험



볼링 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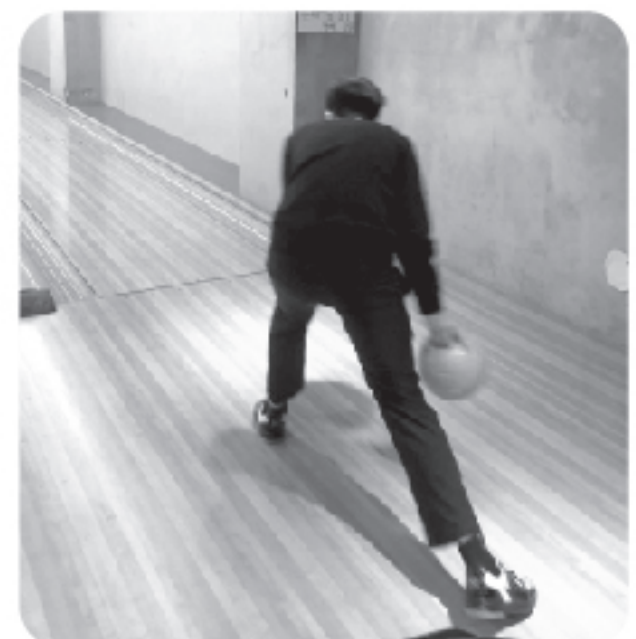
산책



알까기



보드게임



볼링



## 수련활동



하계캠프(가평레일바이크/ 아침고요수목원)



추계소풍(안산갈대습지공원/ 한양대ERICA캠퍼스투어/ 시화나래조력공원)



추계캠프(제주도/ 가파도/ 우도)



## 입맛 돌아오는 우리집 레시피 간장새우장

01



마트에서 오늘의  
재료를 구매합니다.

※ 재료 : 대하, 양조간장,  
사과, 레몬, 양파, 생강,  
청양고추, 홍고추,  
건표고버섯, 소주, 미림

02



냉동된 대하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며 해동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03



사과 1개, 레몬 반개,  
양파 1개, 생강 반개,  
마늘 10쪽, 청양고추 3개,  
홍고추 2개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놓습니다.

04



새우(대하)는 머리 위  
불에 찔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가위로 잘라  
주고, 등에 있는 내장은  
이쑤시개로 제거하여  
세척 후 소주에  
담가둡니다.

05



진간장 2, 생수 4,  
미림 1 비율로 맞춰서  
냄비에 담아둡니다.  
냄비 안에 손질한 사과,  
양파, 생강, 건표고버섯을  
넣어 20분 끓여줍니다.  
이후 간장소스를  
차가운 곳에서 식혀줍니다.

06



손질한 새우를 꺼낸 후  
충분히 식은 간장 소스를  
넣어 3일 간 숙성합니다.  
숙성 시 간장만 따로 끓여  
식힌 후 넣어 주면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완성된 간장새우장을 구운 김,  
쌀밥과 함께 만들어먹습니다.



# 몸에 좋은 우리집 레시피

## 버섯전복밥

01



마트에서 오늘의 재료를 구매합니다.

※ 재료 : 백미, 전복, 표고버섯, 부추, 청양고추, 진간장, 참기름, 참깨, 식초

02



백미를 세척 후 찬물에 잘 불려두고, 표고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놓습니다.

03



전복을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이물질과 이빨을 제거합니다. 내장과 살 부분을 분리하고, 내장은 잘게 썰어 팬에 참기름을 두른 후 볶아줍니다.

04



밥과 전복이 따로 눌지 않도록 표고버섯과 같이 전복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줍니다.

05



내장은 잘게 썰어 팬에 참기름을 두른 후 볶아줍니다. 이후 충분히 불려둔 흰쌀에 물을 조금 더 넣어 냄비에 이동시켜놓습니다.

06



부추, 청양고추를 송송 자르고 참깨, 간장, 식초, 물을 섞어 양념간장을 만들어 버섯전복밥과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COVID-19 시기에 외식없이 맛있게 끼니를 해결한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들의 요리솜씨입니다^^



# 월드비전 공모사업

청소년쉼터 퇴소생들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성남시 내고향(도시락&월세 지원)”

- 공모사업 : 월드비전 위기아동(가정밖 청소년)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0. 3. 1. ~ 11. 30. (9개월)
- 참여인원 : 8명
- 활동내용 :
  1. 도담(도시락을 담다) : 월 2회 직접 방문을 하여 도시락 전달 후 퇴소생들의 근황 파악 및 사례관리
  2. 따뜻한 동지 만들기 : ① 6회 주거비(월세, 고시원 등) 일부 지원  
② 퇴소생 생일축하 지원  
③ 기타 생필품(의약품, 속옷 등) 지원



위례동 성당 반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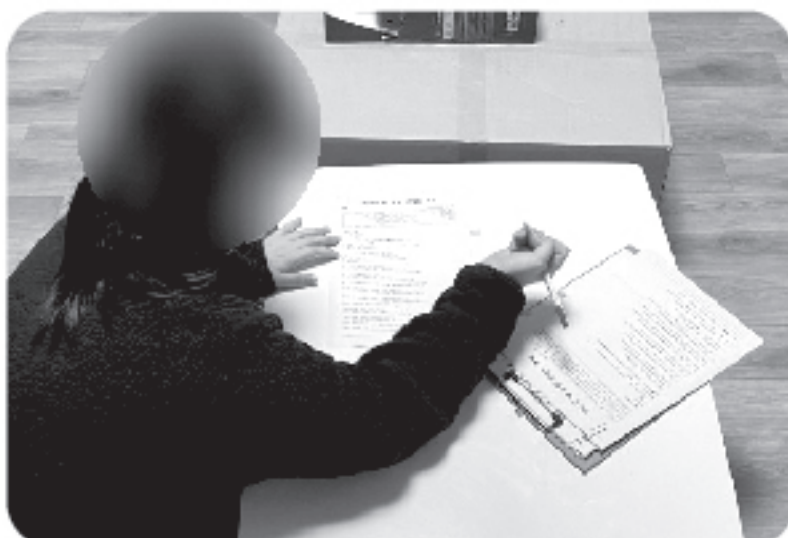
죽전동 성당 반찬 지원



도시락



월세 및 사례관리



월세지원 및 사례관리



도시락 전달 및 사례관리



세번째

# 고진감래

## 苦盡甘來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중장기쉼터 우수사례

여성가족부 우수청소년 장관표창  
자립예정 '오성진 인터뷰'

대학합격수기 이주황(가명)

대학합격수기 김동현(가명)

Adieu 2020

감사합니다





# 중장기쉼터 우수사례

순번	교과과목명	과목코드	분반	학점	이수구분	점수	평점	학점	비고
1	분학이이해	210001	01	3	전필	95	4.5	A+	
2	매매	010001	02	.5	교필		1	P	
3	전공전투설계	600001	17	1	전필		1	P	
4	실용영어1	011895	04	2	교필	86	3.5	B+	
5	세계원형서사	210123	01	3	전선	90	4	A	
6	미시발상법	210135	01	3	전선	95	4.5	A+	
7	기독교화양상교육	010040	01	3	교필	99	4.5	A+	
8	차아실현의인문학3	820542	01	3	교선	98	4.5	A+	

## 박민수(가명)

신청학점	취득학점	산술평균	평점평균	역사	상위백분율
18.5	18.5	94.29	4.29	2	6.25

석차 및 상위백분율은 단순 성적비교에 의한 것으로 실제 성적지학(학점등록어부 및 총이수학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중장기쉼터에 입소했던 민수는 예민한 고3 이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3 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친구들과 빠르게 어울리고,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착실하게 해내며 2020년 당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입학하여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올 해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민수는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싶은 꿈이 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내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답게 스스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과에서 2등을 하여 교내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냈던 학자금 대출금액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군대를 먼저 다녀와야겠다고 계획한 민수는 2021년 3월 입대할 예정이며, 건강하게 군 복무 후 제대하고 나면 LH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자립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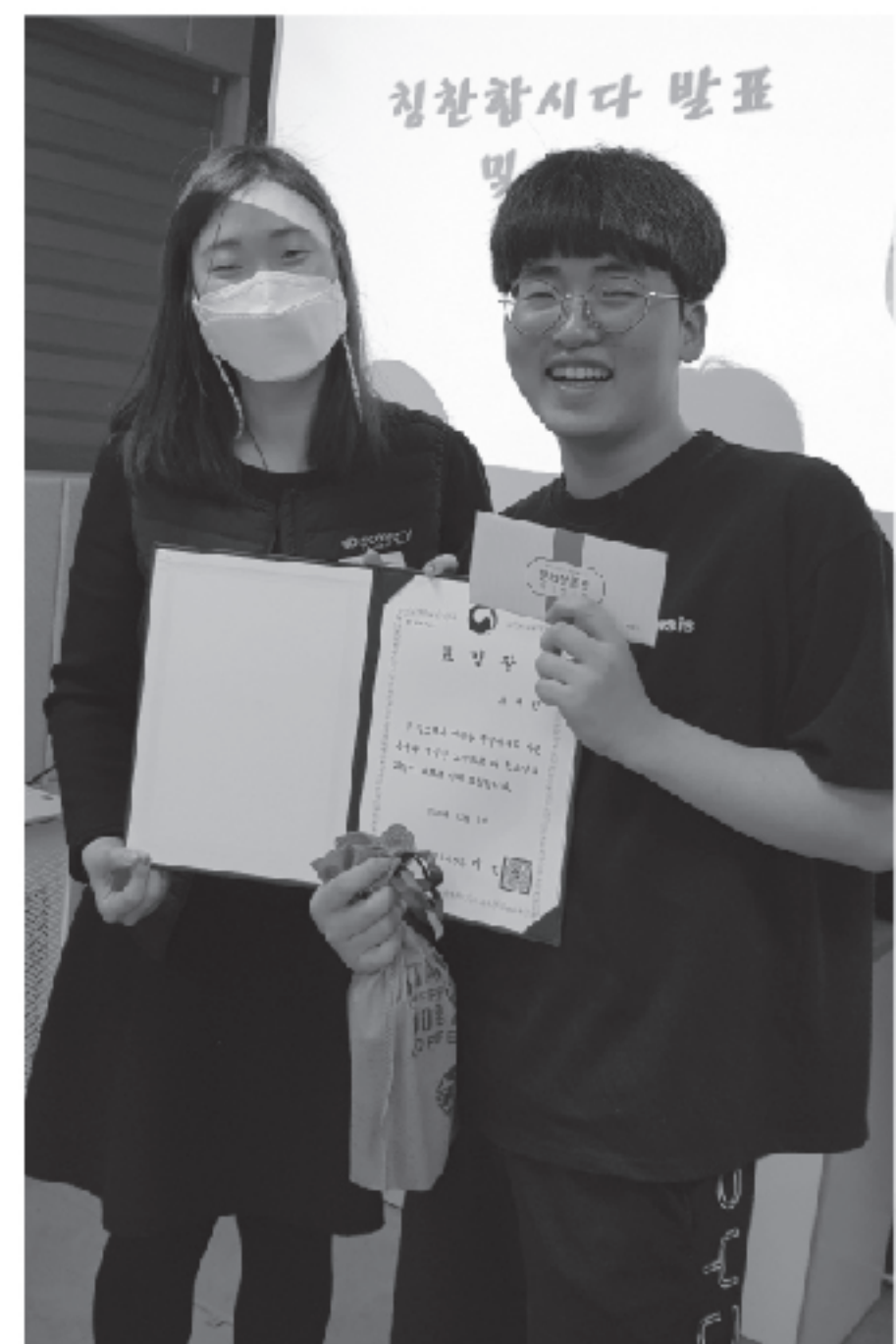
2021년도에는 멋진 군인이 되어있을 민수를 응원해주세요^^

## 오성진

2017년 2월, 중장기쉼터에 입소한 성진이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아이였지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성진이는 그저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평범한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았던 성진이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요리'였습니다.

성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반 요리활동을 하면서 방학 때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방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급여의 80%씩 저축하며 자립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쉼터 생활을 하여 2020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성진이는 내년 2월 자립 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진이를 응원해주세요^^





# 자립 예정 오성진군과의 인터뷰...



Q. 중장기 가족이 된지 얼마나 됐나요?

A. "2017년 초에 왔으니 약 4년이 다되어갑니다."

Q.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A.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놀러갈 때 또는 코로나19로 외출을 할 수 없을 때는 쉼터 동생들과랑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볼 때입니다."

Q.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A. "음.. 가깝싸와 몇시간동안 상담?? 할 때가 떠오르네요...ㅋㅋ"

Q. 누가 가장 힘이 되었나요?

A. "누가 뭐래도 선생님들이죠!"

Q. 쉼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이번에 제주도 도보캠프를 갔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즐거웠어요~"

Q. 쉼터에서 이것만은 정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다른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인 것 같아요!!"

Q. 생활할 때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인가요?

A. "월급의 80%는 저축을 했지만 나머지 돈은 생길 때 마다 다 써버린 게 후회가 되네요"

Q. 앞으로 자립하게 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A. "앞의 질문의 대답과 동일하게 소비습관이 걱정이 되네요"

Q.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A.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더 해보고싶긴 해요"

Q. 쉼터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본인이 할 것만 잘 하면 쉼터가 천국일테지만... 그게 안되면 글썄... 좀 힘들겠지??"

Q. 당신에게 '쉼터'란..

A. "집... 그 이상이다!!"



# 대학합격수기 1

## “나의 꿈 나의 미래”

이주황(가명)

저는 이번 8월에 시행한 검정고시 시험을 다시 보고 기존의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신구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에 지원하여 둘 다 합격하였습니다. 항상 공부 말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쉼터에서 있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러 선생님과 상담한 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작은형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랑 작은형이 한참 미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학교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16살에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새가슴 수술로 인해 학교에 바로 갈 수가 없었기에 중등 검정고시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모님의 방치에 가까운 무관심으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고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져 17세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 친구도 없었으며 여러 가지 고민이 더해져 알아본 결과 지금의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를 알게 되었고 면접 후 입소하여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대학교 입학 후 동아리 활동이나 과에서 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학 능력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한국외대 영어 교육과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과거 경험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저 당연한 '나눔'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와 관련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으로 가서 호텔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어학 능력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관광 가이드가 되는 것인데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의 목적을 미리 알아 최상의 정보와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한편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며...” •

김동현(가명)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기쉼터에서 4년 정도 생활하다가 인하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퇴소한 20살 김동현(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부터 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었습니다. 쉼터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쉼터에서 지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 따로 살 방을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합격한 후 돌아본 중장기에서의 4년은 '김동현(가명)'을 어엿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년이 없었다면, 저는 목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어영부영 살아갔을 것입니다.

'쉼터'라는 공간은 저에게 '공부 의지'를 불어 넣어 줬고, '쉼터 선생님'들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으며 '입소생'들은 저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장가람 시설장님, 방철우 선생님, 오정빈 선생님, 나병찬 선생님, 박주형 전 소장님을 비롯하여 제 주변 분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쉼터에 교육 봉사를 하거나 급식소 봉사를 하면서 이 빛들을 천천히 갇아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겪었던 허황된 현실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쉼터 입소생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변화의식을 가져야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직은 어린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동현(가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능기부를 하여 쉼터 동생의 수학 과외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 Adieu 2020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박 \* \* (22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고시원에 간 것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학 공부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바다

오 \* \* (20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나다!!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군면제??^^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코로나19전에 놀러가지 못한 것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퇴소 후 자리 잡는 것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해외여행

노 \* \* (20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귀한 등록금내고 대학교도 못간 1인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학과에서 1등한 점!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대학교 학업 및 활동을 못한 것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군입대 ㅠㅠ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군대^^





## 안 \* \* (20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난 성실이~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제주도 여행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온라인 사기 피기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스키장!

## 이 \* \* (19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나? 해피맨!!!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이쁜 옷을 살 수 있어서^^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거ㅠㅠ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친구 많이 만들고 취미생활하기!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일본가보고 싶어요!!

## 박 \* \* (17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나는 나!!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많이 쉬었다!!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한게 없는 것? ::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꿈 찾기!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일본~

## 이 \* \* (15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사람!!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게임!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학원다니겠다고 한거!!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게임!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해외

## 박 \* \* (14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독고다이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컴터에 와서 좋았다.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엄마를 찾지 못한 것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 빼기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캐나다

## 이 \* \* (14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공부를 못함.. ㅠㅠ

올 한해 가장 좋았던 점은?

크리스마스 선물~ 블루투스 이어폰^^

올 한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없음.

내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무일없이 잘 지내기

2021년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제주도



# ■ 감사합니다^^

# THANK YOU!

- 성남시중장기쉼터에 입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 2019년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번 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 LH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쉼터에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과에서 2등을 하였고, 덕분에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다이어트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량 조끼와 식자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식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과 이번 년 희망하는 대학교, 학과에 합격하여 감사합니다.
- 2020년 고등학교 진학 후 1학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 너무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살펴주시고, 맛있는 밥과 컴퓨터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갈 때가 없어 매일 옮겨 다녔어야 하는데 쉼터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Wee센터에 간 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한 해 동안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쉼터 프로그램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 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다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 살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교를 합격하였습니다. 진학 후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쉼터에 입소하지 않았더라면 시간 낭비만 하고 살았을 텐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 명심불망

銘心不忘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실습후기 - 김남희

봉사자 후기 - 박성영

봉사자 후기 - 안수호

종사자 이야기 - 방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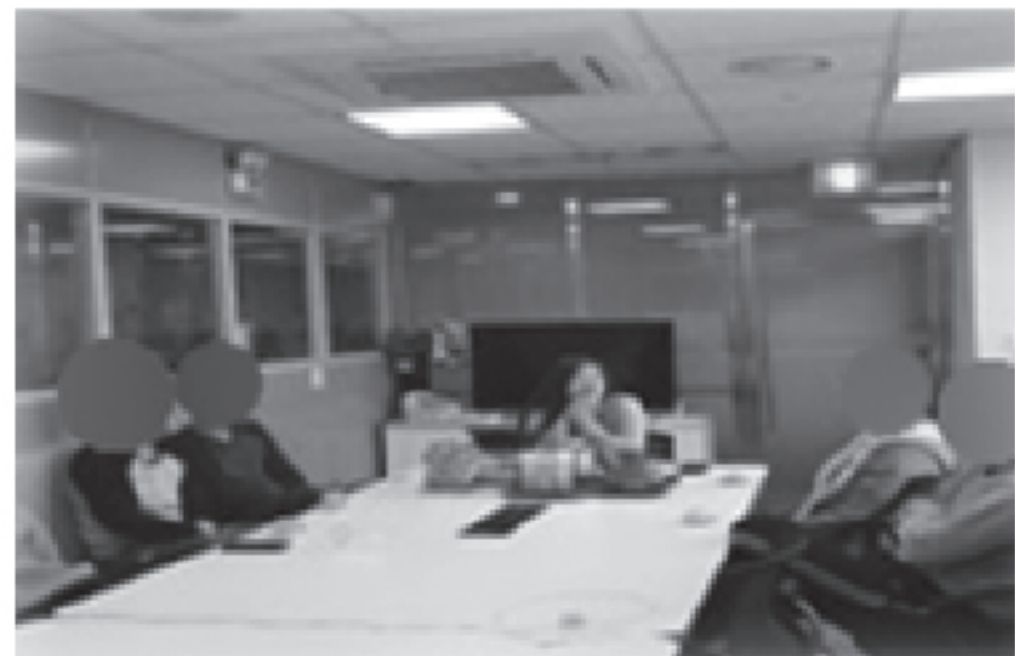




# 사회복지사 실습 소감문

실습생 김 남 희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평범하게 지내던 가정주부예요. 집안에서의 하루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서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던 찰라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사회복지사가 되어보자 결심했죠.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저의 의사를 전달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깐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 공부, 과제, 시험, 실습, 그 외의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부담도 되었고, 그래서 더욱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가족들의 협조와 응원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공부는 저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사로서 한발 다가가고 있는 나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실습을 시작하면서도 집에서만 있던 나 자신을 잠시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배움을 함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했어요. 실습을 지도해주신 주임님, 시설장님, 그 외에 사회복지사님들과 많은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실수해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지도해주셔서 제가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어 함께하는 일원인 것처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인지 깨닫는 실습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꼭 다시 만나고 싶을 만큼 사회복지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실습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에게도 즐겁고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회복지사를 하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일 또한 어르신들에 관한 일을 많이 할 거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이 다양하고 내가 앞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혹 사회복지사를 고민하고 준비를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도전하고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응원해 봐요. 세상은 힘들지만 함께여서 행복하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느꼈어요.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기관의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실습하면서 느낀 소감을 마무리하려 해요.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요. 행복한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세요!





## 자원봉사자 소감문 1

수학봉사자 박 성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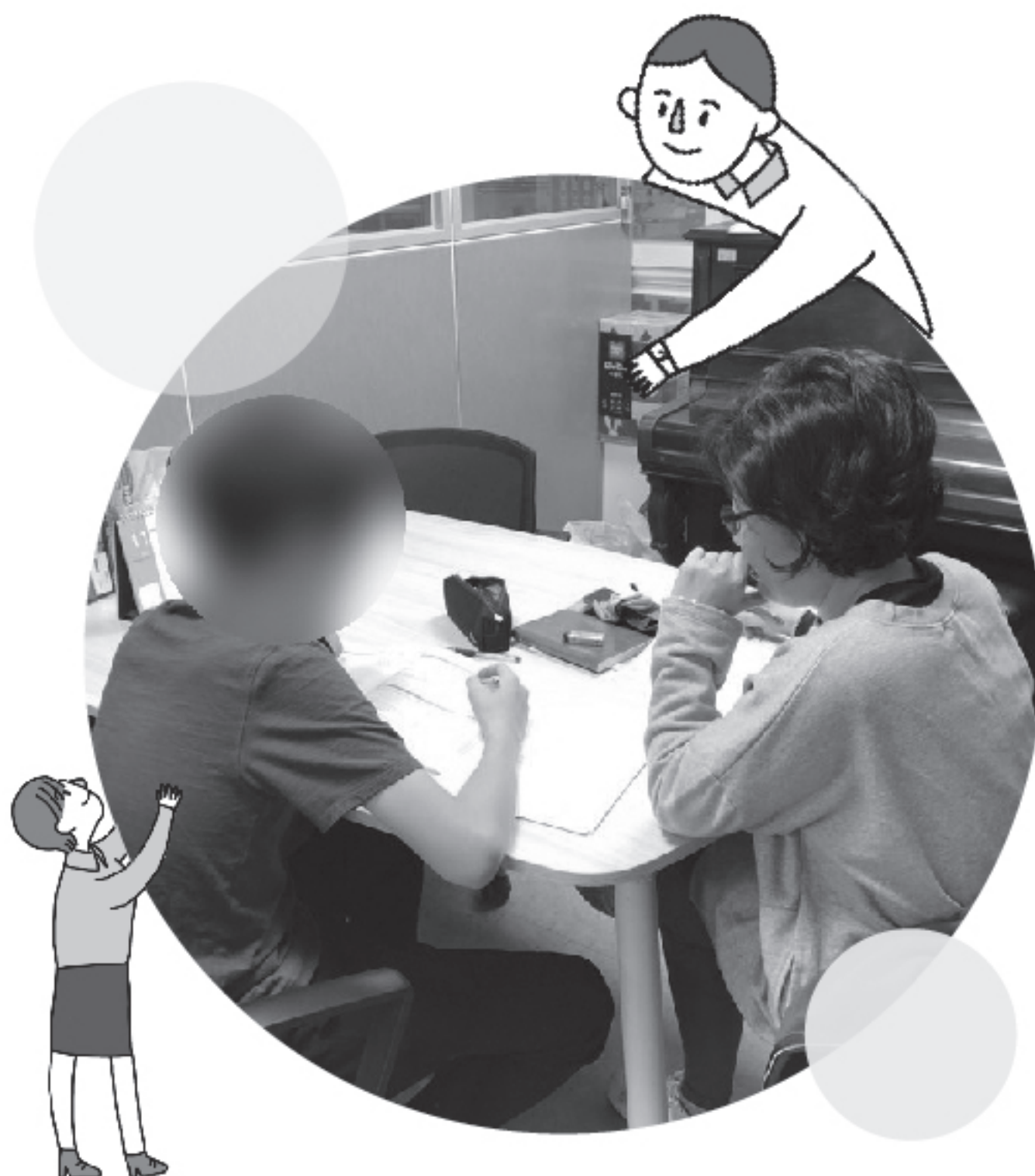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그날도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기보다 기계적으로 성당에 들어섰다. 들리는 음성의 발음이 약간 어색해서 살펴보니 외국인 신부님께서 집전하고 계셨다. 그렇게 김하종 신부님의 강론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의 참 뜻을 삶으로 녹여내고 계신 신부님! '안나의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청소년쉼터로 연결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멀리서 찾지 말란 신부님 말씀 덕에 수학 봉사로 아이들을 만났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공부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된 아이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다시 인생을 배운다. 봉사는 타인을 돕기 이전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마법이 아닐까 싶다. 자칫 모르고 지나쳤을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신부님과 쉼터 선생님들 그리고 믿고 따라와 주는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자 소감문 2

## 천천히 걷는 아이들

안 수 호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천주교 신부를 지망하는 신학생 안수호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5월부터 이곳 성남시남자청소년중장기쉼터(이하 쉼터)에서 약 5개월정도 동안 쉼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지나 이렇게 감회를 전하게 되다니 참 재밌습니다. 신학교에선 신학생 한 사람이 신부로 서품받기 전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대략 10년의 시간을 배우고 수련하게 되는데, 그 중간쯤인 '제대 후 복학하기 전 약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사회로 나가 여러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사실 그래서 올해 저는 몇몇 동료들과 남미의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그곳 신부님을 도우며 봉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부 무산되어, 저는 국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저희 성당에 계신 신부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안나의 집에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1주일간은 안나의 집 급식소로, 그 이후엔 월요일은 급식소, 나머지 평일은 쉼터로 출근했고, 6월부터 9월까지의 쉼터로만 다녔습니다.

잠시였지만, 급식소 봉사는 명확하고, 단순하고, 일한 만큼 보람을 얻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급식소 봉사가 어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기서 평생 썰 야채를 다 썬 것 같습니다. 매일 5~700명분의 한 끼 식사를 무상으로 날마다 제공하는 곳은 난민보호소가 아닌 다음에야 찾아보기도 힘드니, 그야말로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김하중 신부님의 존재는 참 크게 느껴지고 존경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님께선 급식소에서 일하던 저에게 '이제부터 쉼터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권유로 저를 이곳 쉼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에 따르면 성남시에만 몇백명씩 존재하는 노숙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와 음지를 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신부님께서 주도하시던 급식소 사업과는 별개로, 신부님은 특별히 쉼터 사업과 또 그곳 아이들이 정말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들 청소년들이 그런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노숙인들의 현실이 바로 어렸을 적 사랑의 결핍 때문에 벌어지는 일임을 신부님의 설명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런 문제들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과업을 저도 나름대로 돕게 됐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월 중순 쉼터로 가긴 갔지만 처음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신부님의 말씀 하나만 달랑 가지고 봉사자로 갔으나 처음엔 뭘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제각기 바빠 보이고, 아이고.. 이러다 민폐 끼치는 것 아닌가 하며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때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음을 느끼지만요. 그런 점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 쉼터에 와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 한 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쉼터 사무실에서 제가 도와드릴만한 부분이 대단히 많지는 않았기에, 그렇게라도 스스로 목적의식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아이들과 교류하다 보니, 정말로 아이들의 마음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다소 닫혀있고 상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어설피게 친구 행세를 하다 상처만 키워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그런 아픔들이 제 마음에 숨어있던 여러 아픔들도 불러일으키는 듯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때때로 적잖은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좋은 모습을 더 보고, 또 아이들과 의미있는 시간도 더 보내고 싶어서, 심적으로 조금



무리하는 듯싶었지만 계속 함께하며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보니,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과 이런저런 소통도 많이 했고, 또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조금씩 더 자라고 저도 그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뭐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해준 것 보단 받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라고 하셨지만 되려 받는 제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복잡하지만, 그 내면은 단순하며, 닫힌 마음을 하나하나 조금씩 여는 것은 사랑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내면서 아이들의 톡톡 튀는 여러 특별함을 발견하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면". 지내다보니 아이들에게 사랑도, 재능도, 다양한 매력도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 만난 현실은 그런 모습들이 받아들여지고 발휘되기에는 너무 가혹했지요. 그러한 그들의 상황, 또 그들이 떠나온 가정의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제가 살면서 그들보다 더 많이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이 생각나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과거로 인한 상처들, 또 한계처럼 느껴만 지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걸 절감하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하고 좋은 모습들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조금이지만 더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희망으로부터 아이들의 말을 눈높이에 맞춰 들어주고 맞장구쳐 주고 할 수 있는 힘이 났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거라 생각하며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아이들의 친구를 자처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만큼 경계와 두려움, 또는 증오가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걸 바라지 않으며 그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재밌게 또 편하게, 때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해줄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저도 같이 널브러져 있다가 선생님을 마주치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도 안되는 것 같은 욕심같은 마음이 들 때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별 다른 수가 없었기에 그냥저냥 잘 지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두드려 주었기를, 그렇게 아이들의 기억에 얼핏 떠오르는 사람으로 남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천천히 걷는 우리 쉼터 아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어엿하게 잘 살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들이 바르고 기쁘게 잘 살아간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빠르고 정없이 많은 것을 획획 처리하는 듯 보이는 우리 사회에 더없는 위로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끝으로 쉼터 선생님들께 정말정말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도와드린답시고 와서 민폐만 많이 끼치고 가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할 일도 많이 알려 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챙겨주시고 봉사활동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워가기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때의 기억을 영영 간직하며 힘을 얻겠습니다...

아이들 곁에 선생님들같은 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위안이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성심성의껏 돌보아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천사같은 선생님들께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종사자 이야기

#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배웁니다



보호·상담원 방 철 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청소년쉼터에서 일할 것이라고 동기들에게 막연하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년쉼터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종사한 후 마침내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기쁜 마음을 갖고 지난해 겨울부터 야간·보호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학교와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쉼터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하며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쉼터에 근무하면서 가정에서의 학대, 방임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집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 등의 고민을 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나누고, 아이들과 직접 생활하며 다양한 아픔과 고민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쉼터에서 아이들의 중장기적인 보호와 정서지원 및 생활지도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찾고, 학업 및 진로를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도전을 지지하며 혹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더라도 안주하지 않고, 재도전을 격려하며 끊임없는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며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시며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조리사님, 끊임없는 열정과 인내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시는 선생님,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리시며 활동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 따뜻한 언어와 공감으로 아이들을 살피시는 선생님, 섬세하게 아이들의 필요를 살피시는 선생님, 무한한 긍정마인드로 아이들을 유쾌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 열린 마음으로 이성과 감성을 넘나들며 아이의 세세한 마음까지 헤아려주시는 선생님. 마지막으로 형, 동생 친구들을 서로 아끼며 살피는 아이들의 그 마음. 바로 '사랑'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긍정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며, 깊은 밤 따뜻한 방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자는 아이들을 살피며 하루를 마감하고, 기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우다 보면 아이들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든 날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 한 달, 몇 개월을 성실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삶과 나 자신이 더욱 성숙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훗날 어른이 된 아이들이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를 기억하며 이곳은 집 이상의 장소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가족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이들과 부대끼며 즐겁게 지내고자 합니다.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한지 한해가 다 되어가는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나누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다섯번째

유방백세

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후원금 내역, 후원물품 내역

봉사자 소개

후원계좌/ 오시는 길





# THANKS 2020

##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김윤자 200,000/ 서울모금회 800,000/ 죽전동성당 200,000/ 경기도복지정책과 200,000 / 북정고등학교 148,000/ 엄아네스 10,000/ 김남희 100,000
2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500,000/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880,000
3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엄아네스 20,000/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800,000
4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500,000/ 엄아네스 20,000
5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500,000
6월	김윤자 200,000/ 서울모금회 500,000/ 죽전동성당 200,000
7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8월	엄아네스 20,000/ 김윤자 200,000/ KT&G복지 100,000/ 죽전동성당 200,000
9월	김윤자 200,000/ 전정자 10,000/ 경기도복지정책과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10월	전정자 20,000/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11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전정자 10,000
12월	김윤자 200,000/ 죽전동성당 200,000/ 경기도복지정책과 200,000/ 전정자 10,000

##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홍장원 (중식 10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식사권 2매)/ 카페미르(케이크 1상자) / 이매동성당 (마스크 100매)/ 박현주 (언어치료 4회)/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세탁세제 3상자)
2월	홍장원 (중식 10인분, 마카롱 1상자)/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손소독제 20개, 마스크 150개) / 이매동성당 (주부식 1상자)/ 안순희 (사혈기 1세트)
3월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도서 205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기살균기 5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샴푸 5개)/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신발&양말 8인, 마스크&손소독제 1상자)/ 월드비전 (면마스크, 손소독제 1상자)
4월	성남시청교육청소년과(면마스크 50개)/ 월드비전 (카카오미니 8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스크팩 1 상자)/ 홍장원 (중식 10인분)/ 성남시교육청소년과 (체온계·마스크 1상자, 카카오미니 10개))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마스크 120개)/ 카페미르 (치킨 14마리)/ 홍장원 (중식 10인분) / 하남시그룹홈 (음료 1상자)/ 김원빈 (사운드바, 자전거, 소형냉장고, 핸드폰S5 각1대)



6월	마데인코 (볼캡 70개)/ 성남시교육청소년과 (물티슈 2상자, 선풍기 5대)/ 길림양행 (프레첼 40상자)
7월	성남시청소년재단 (실내자전거 2대)/ 강원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간식류 1상자)/ 위례동성당 (음료 5병)/ 좌용호 (주부식 1상자, 소모품 및 간식 1상자)/ 박현주 (언어치료 4회)
8월	좌용호 (주부식, 소모품 등 500,000원 상당)/ 위례동행정복지센터 (마스크 52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서 38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도서 25권)/ 위례동성당 (음료 6개)/ 성남시교육청소년과 (마스크 180개)
9월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이너웨어 1상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화장품 30상자)/ 돈까스짬상대원점 (돈까스 15개)/ 성남시교육청소년과 (화장지 및 세제 1상자)/ 안수호(간식 4상자)
10월	돈까스짬상대원점 (돈까스 25개)
1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화장품 64개)/ 안수호(마카롱, 음료 3상자)/ 위례동성당 (빼빼로 40개) / 성남시교육청소년과 (동계피복 9벌)/ 한국상담복지개발원 (담요, 핫팩 18개)
12월	돈까스짬상대원점 (돈까스 15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화장품 96개)/ 위례동성당 (간식, 손소독제 2상자)/ 강용구 (퍼즐 10개)/ 위례새생명순복음교회 (이너웨어 2상자)/ 푸라닭위례점 (치킨 10마리)

## ♡ 봉사자님 소개

**학습봉사자** (국어-황수민님, 이윤호님/ 영어-홍장원님, 최현정님, 손승혜님, 김지윤님/ 수학-박성영님  
/ 한국사-손현진님/ 경제-주우성님/ 과학-강지완님, 강성연님)

**상 담** (개인상담-홍장원님, 진로상담-유봉영님)

**시설유지보수** (이경규님)

**식사봉사** (이매동성당 빈첸시오회, 위례동성당, 죽전동성당, 코이노니아, 평내동성당)

**음악치료** (가천대 음악치료대학원-김진수님)

**프로그램지원** (김호정님, 김경선님, 이보경님)

**멘토링프로그램** (서초동성당-청년부 레지오)

**행정봉사** (김민지님, 박한빛님)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임희정님)

**피아노&조율** (안수호)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자원봉사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재능나눔 및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일반후원

쉼터를 위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 오시는 길



지하철

복정역 2번 출구 하차



버 스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정류장 하차  
(331, 50-1, 50, 452, 3012)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정류장에서 300m 거리에 위치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Tel. 031-752-9050 | Fax. 031-758-9050 | E-mail. jnshimter@hanmail.net

[www.bestboy.co.kr](http://www.bestboy.co.kr)